

哲學時想

(人間)

金基錫

「人間學이 歷史觀을 規定한다。」人間學이란 人間の 自己解釋이다. 이 人間이란 무엇인가. 이 人間の 存在란 무엇인가. 人間の 理念은 自由에 있다고 보는 이들에게서 歷史는 自由의 歷史로 理解되고 人間の 現實을 生産에 있다고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 歷史는 生死의 歷史로 主張된다. 希臘의 思索하는 이들은 人間을 생각하는 存在라고 보았다. 오늘의 現實主義는 人間을 「연장」가진 生物이라고 가르친다. 그리 하여 하나는 「호모·사피엔스」 하나는 「호모·파베르」의 人間理念을 내여서 우면서 歷史를 解釋하고 社會를 說明한다.

우리들은 먼저 人間이란 것이 存在한다고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무단한 流動轉變속에서 자기를 人間인 것으로 限定하면서 움직이는 한 갈래의 存在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人間을 存在로 보는 것은 人間을 어떤 久遠한 것으로 어떤 獨立되야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人間이 存在인 限에서 存在一般의 基本性格인 時間性 「場所」性을 버서나서 人間이란 것이 存在할 기이 없기 때문이다.

時間과場所 또는 運動과聯關 이것은 어디까지 던지 人間の 存在로서의 性格이 되지 안스어서는 안 된다.

時間에 있어서 움직이면서 「場所」에 있어서 얼마이면서 人間은 自己를 久遠한 成의 「마당」인 存在의 世界속에서 發見한다. 人間을 時間的 「場所」的인 存在로 보는 일. 이것은 人間の 存在者로서의 把握이요. 人間の 人間으로소의 規定은 아니다. 人間만이 時間性과 「場所」性을 그 자신의 存在의 型式으로하는가.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해와 달과 산과 바다를 보라. 그것들이 存在인한에서 이 基本型式을 버서나는 일이 있는가. 人間은 자기를 存在로서의 人間이면서 거들 人間으로서의 人間으로 規定하는 그 자신의 固有한 性格을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人間本然의 固有한 性格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人間을 歷史的 社會的인 存在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는데서 우리들은 人間을 과연 어느 程度까지 具體的 現實的으로 理解하게되는가.

人間이 歷史性 및 社會性에 있어서 자기를 단순한 時間的 「場所」的인 存在로부터 구별한다고 하면 이 歷史性 및 社會性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의 많은 思索하는 이들은 歷史性的 地盤을 時間性에서 社會性的 基礎를 「場所」性에서 찾으려고 한다. 時間이란 무엇인가. 「場所」란 무엇인가. 時間은 運動을 意味하고 「場所」는 瞬間을 意味한다. 運動이란 무엇인가. 聯關이란 무엇인가. 現實主義는 人間을 歷史的 社會的인 存在로 規定하는 자리에서 나아가 歷史性 및 社會性的 構造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歷史는 時間의 한 自己限定이 아닐까. 社會는 「場所」의 한 自己限定이 아닐까. 歷史란 人間이 가지는 運動이요. 社會란 人間이 가지는 瞬間인 것이다. 人間을 歷史性에 있어서 規定할 것이 아니고 歷史性을 人間學的 規定에 있어서 解明해야 한다. 우리들은 人間이 歷史的 社會的 存在라는 命題에서 깊은 뜻을 외운다. 그러나 우리들은 歷史가 人間的인 運動 社會가 人間的인 聯關이라는 새로운 命題에서 한층 더 깊은 뜻을 외오지 않아서는 안 된다.

實 踐

우리들은 實踐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이 實踐이란 만에 依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理解되고있는가. 實踐이란 먼저 한 개의 運動이 안되면 안 된다. 流動, 轉變, 生成, 發展같은 것을 떠날 때 實踐은 그 자신의 「流床」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의 理想主義에서가 아니라 오늘의 現實主義에 있어서 이 實踐이란 말이 집어 올려지는 한 개의 理由를 우리들은 實踐의 가지는 意味 그 자신 속에서 發見한다. (實踐이 觀念을 意味한다고 하라.) 實踐이 理念을 意味한다고 하라. 그때 實踐은 觀念이란 말이 받고 있는 구박을 오늘의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하게 된다. 實踐은 한 개의 運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實踐을 一般的으로 規定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아가 實踐의 個別的 規定을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實踐은 運動속에 쌓인다. 運動은 實踐과 實踐아닌 것을 그 속에 에워싼다. 實踐은 같은 運인 地盤우에서 자기들 實踐으로 限定하면서 자기와 마조서는 것을 단순한 運動으로 措定한다. 實踐은 어떤 性格에 있어서 자기를 단순한 運動으로부터 구별하게 되는가.

사람들은 觀念에 대한 現實의 優越을 말한다. 思惟에 대한 實踐의 優越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觀念을 反省하고 思惟를 理

解하고 나아가 現實 및 實踐을 規定해야 할 것이 아닐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實踐을 한개의 運動으로만 보는 이 一般的인 規定에로 쫓리는가. 實踐을 運動적인 것으로 把捉하는것은 그것을 靜止적인 것으로 說明하는 것보다는 앞선다. 그러나 實踐은 어디까지던지 단순한 運動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運動으로 물어 헤어지는 자리에서 實踐은 그 자신의 尊한 貴性格을 主張한다.

비가 나리고 바람이 불 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運動의 世界를 외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비나 바람이 한 개의 實踐을가지는것인가. 풀이소사나고나 무가옥어질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生成의 世界들의 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풀이나 나무는 한 개의 實踐을가지는것인가.

「哲學은 그 自身の 地盤으로서 生을 가진다.」 이때 生이란 生活 또는 人間을 意味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哲學은 결국 思惟이니 思惟가 그 자신의 地盤으로서 人間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된다. 實踐은 그 자신의 地盤으로서 무엇을 가지는 것일가. 自然이 있고 人間이 있다고 보는 한에서 그리고 自然으로부터 人間이 자기를 구별한다고 보는 限에서 우리들은 단순한 自然의 世界속에서 實踐을 외올 수는 없는 것이다. 人間으 일흠 때 自然은 그대로 「存在하는 自然」이요, 「理解되는 自然」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實踐의 人間的 人間學的 性格을 외온다. 實踐은 그 자신의 地盤으로서 人間을 가진다. 實踐은 人間の 運動이 아니면 안 된다. 人間の 바로 살려는 運動이 아니면 안 된다. 人間の 바로 「거러가는」 運動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人間이란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時間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想起한다. 「그러면 時間이란 무엇인가. 누가 내게 못지 않을 때 나는 알고 있다. 나다려 못하는 이에게 說明하려고할 때 나는 그것을 모른다.」

現實主義

「現實은 이데올로기를 規正한다.」 이 現實이란 무엇인가. 「헤겔」은 絶對적인 實在로 精神이란 것을 想定하고 自然을 그것의 他在能라고하여 精神으로부터 物質을 說明한다. 이 世紀의 現實主義는 絶對적인 實在로 物質이란 것을 想定하고 思惟를 그것의 自己疏外라고 하여 物質로부터 精神을 解說한다.

어떤 「하나」인 實在를 내여세우는데서 觀念論과 現實主義는 그 態度를

한번 재같이 한다. 이 어떤 「하나」인 絶對的인것이 다른 모든 것의 眞實한 地盤이 된다고 보는데서 觀念論과 現實主義는 그 態度를 두 번 재같이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地盤이라고 보여 지는 精神 또는 物質이 自然 및 歷史를 統一支配한다고 보는데서 觀念論과 現實主義는 그 態度를 세 번 재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그 態度一般을 이 심한다. 우리들은 이 어떤 「하나」를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이 어떤 「하나」의 優勢인 決定을 차져야 할 것인가. 宇宙에 어떤 「하나」가 없다고 할진대 自然 및 歷史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優勢인 決定이 없다고 할진대 「現實이 이데올로기를 規定한다」는 이 世紀의 빛나는 命題는 한 개의 어떤 患者의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現實이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事實을 이름이니 事實은 자기를 어떤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가. 事實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事實은 먼저 열매여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事實은 그 자신 運動이요. 聯關이 아니면 안 된다. 實在를 運動 및 聯關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見解를 우리는 現實主義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現實主義는 實在의 形式으로 運動 및 聯關을 어떻게 說明하고 있는 것인가. 現實主義는 存在를 時間的 空間的인 것으로 따라서 現實을 歷史的 社會的인 것으로 가르친다. 우리들은 存在 및 現實에 대한 現實主義이 一이 基本理解를 처음부터 그대로 是認한다. 이제 現實主義는 나아가 聯關을 代立으로 運動을 發展으로 「번역」하고 眞實한것은 對立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높은 「하나」에로 發展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聯關을 對立에 그치고 마는 것으로, 運動을 發展에 마치고 마는 것으로 보는 이들은 이 對立 및 發展을 實在의 最高範疇로 보아 모도를 이 두 範疇를 通하여 模寫 解釋하게 된다. 모도를 聯關 및 運動에 있어서 보는 넓은 立場을 가질 때 우리들은 現實主義를 배운다. 그러나 모도를 對立 및 發展에 있어서 뿐 보는 구차한 見解에 붓잡힐 때 우리들은 現實主義를 버린다. 진실한 聯關은 對立을 그 속세 싸는 無限한 限定이요. 진실한 運動은 發展을 그 속에 품는 久遠한 流動轉變이기 때문이다.

現實主義는 存在를 時間的 空間的인 것으로 가르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나아가 時間性 및 空間性의 構造를 反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現實主義는 現實을 歷史的 社會的인 것으로 가르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나아가 歷史性 및 社會性의 構造를 解明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의 現實主義는 이 重要한 課題를 앞에두고 모도를 代立 및 發展에 있어서 뿐 보는 이상한 論理에 사로잡힌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오늘의 現實主義 「헤-

겉」的 顛落을 본다. 「헤겔」은 觀念論만을 神學으로 잇근 것이 아니고 現實主義조차를 한 개의 汎神論에 이끌어 버린다. 現實主義는 자기에게 「發展의 論理」를 가르친 「헤겔」的 思惟로부터 손을 난호고 자기본대의 見解인 聯關 및 運動의 構造를 바로 反省하는데서 그 자신의 새로운 途程에 오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

發展의 論理

現代의 思惟는 모도를 發展의 論理에 있어서 說明한다. 그리 하여 자기를 希臘的 思惟의 發展傳承으로 본다. 이 發展이란 무엇인가. 모도가 發見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發展은 어느 意味의 顯現이 아니면 안 된다. 發展은 어느 意味의 成長이 아니면 안 된다. 顯現成長 같은 概念을 떠나서 우리들은 發展을 생각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發展은 運動으로 述語된다. 運動은 發展을 그리고 發展과 함께 顛落을 顛滅을 그 속에 가진다. 예전 사람들은 存在의 世界를 運動의 論理로 說明한일이 있었다. 存在가 時間的인 存在인한에서 存在의 世界는 運動의 論理로 說明된다. 오늘의 사람들은 存在의 世界를 發展에 論理에 있어서 說明하려고 한다. 存在속에는 發展의 論理로 說明되는 存在란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事實속에는 發展의 論理로 說明되는 事實이란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存在 모든 事實이 이른바 發展의 論理란것에 있어서 說明되어야 맞인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發展이 어디까지던지 運動의 한 直線的 限定임에 反하여 運動이란 본대 훨씬 많은 方向의 限定을 그 속에 안기 때문이다.

그대로 運動이면서 發展이 아닌 얼마나 많은 存在와 事實이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음을 보라. 물이 구름이 되어 바람에 불리는 것이 물의 發展일가. 그리고 구름이 다시 시비되어야 地上에 떨어지는 것이 구름의 發展일가. 바로 이 地面위에 풀한대가 소사나서 옥어졌다가 다시 시들어 버린다. 그때 풀은 자기를 發展시키는 것일가. 오늘의 大學에서는 自然이 討究되고 哲學과 宗教가 論議된다. 그때 人間의 思惟는 자기를 發展시키는 것일가.

發展이란 무엇이 어떤 높은 「하나」에로 止揚되는 것을 意味한다. 發展의 論理는 究竟에 있어서 神學에 墜러진다. 發展의 論理는 目的 論에 나서고 目的論은 汎神論에 나선다. 모도를 發展의 論理에 있어서 뿐 보려는 이들은 現在를 어떤 「하나」에로서의 科程으로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 「하나」를 觀念論에서는 精神이니 理念이니로 부르고 現實主義에서는 物質이니 現實이니로 부른다. 우리들은 이 어떤 「하나」르르이름 짓는 일에 있어서 가

아니라 모도를 어떤 「하나」에로의 發展으로보는 그 根本態度에 反對한다.
모도를 發展에서뿐 본다고 하라.

(一七〇頁로)